保健敎育健康增進學會誌 第28卷 第5號(2011. 12) pp. 105-116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Vol.28, No.5(2011)

대학 신입생의 학문적·사회적 통합성과 자기회의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음주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정구철*†, 신성례**
*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과
** 삼육대학교 간호학과

The Influence of Learning · Social Integration and Self-doubt on the Suicidal Ideation of University Freshmen -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 of Drinking -

Goo Churl Jeong*†, Sung Rae Shin**
**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Sahmyook University*
*** Department of Nursing, Sahmyook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influence of learning·social integration and self-doubt on the suicidal ideation, and to test the mediating effect of self-doubt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drinking on suicidal ideation. **Methods:** A cross-sectional survey was administered to a convenience sample of 1,000 freshmen in a university in S city. A total of 803 questionnaires were included in the statistical analysis. To analysed the data, Pearson correlation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ere performed. **Results:** In this study, self-doubt had a mediating effects in the path way from learning·social integration to suicidal ideation. Drinking had a moderating effect between self-doubt and suicidal ideation. **Conclusions:**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low level of learning·social integration increases the level of self-doubt and leads to suicidal ideation. Drinking was a significant moderator of suicidal ideation. Therefore, interventions on various strategies to enhance academic performance and social interaction skill, and to help to stop or not to initiate drinking habit are needed in the early part of the freshman year.

Key words: Learning integration, Social integration, Self-doubt, Suicidal ideation, Drinking

Ⅰ. 서론

2011학년도가 시작되며 우리나라 대학가의 최대 화두는 단연 대학생들의 자살이라고 볼 수 있다. 한 명문 대학생들의 연쇄 자살을 시작으로 대학 교수의 자살까지 이어지면서 대학생의 자살에 대한 심각성이 고취되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2003년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인구 10만명당 자살사망률은 2003년 24%로 처음 20% 대에 접어든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20%이상의 높은 자살사망률을 유지하고 있고, 20～24세 사이의 청년기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라는 것은 이미 대학생의 자살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Kim, 2009).

교신저자: 정구철
서울시 노원구 화랑로 815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전화: 02-3399-1678 Fax: 02-3399-1680 E-mail: gcjeong@syu.ac.kr
* 본 연구는 2011년도 삼육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No. RI자율2011104).
▪ 투고일: 2011.11.21 ▪ 수정일: 2011.12.27 ▪ 게재확정일: 2011.12.28

자살은 자살생각에서 자살시도와 자살행위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사건으로 분석해야 하므로(Harwood & Jacoby, 2000), 자살률 조사와 더불어 자살생각에 대한 연구가 현실적으로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더욱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Lim, Ju와 Lee (2010)가 한국청소년개발원의 청소년 패널조사자료를 통해 5점 척도로 조사한 청소년들의 자살생각에 대한 자료를 종단적으로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 고학년(1.72) 및 중학교(2.08)에서 고등학교(2.13)로 진학할수록 자살생각의 평균점수가 점차 높아졌으며, 공부에 대한 압박감과 스트레스 점수도 점차 높아진 것으로 보고하였다. 대학생들은 공부에 대한 압박감 및 스트레스, 억압적인 규제에서 해방되었으므로 자살생각을 더 적게 할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보건복지부의 제2차 자살예방종합대책 보고서에 따르면(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8), 대학생들의 자살생각률은 39.2%에 달하며, 자살계획(4.7%)과 자살시도(3.5%)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이처럼 대학생들의 자살생각이 심각한 수준에 있으며, 청소년기 자살생각의 연속선상에 있으나, 우리나라의 자살생각 및 자살사건과 관련된 대책과 연구들은 청소년 혹은 경제적 위기 및 직무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성인들의 자살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 2013년까지 시행할 것으로 제안한 제2차 자살예방종합대책 보고서에서도 대학생의 자살예방 대책을 대학의 학생상담센터를 활용하여 예방한다는 소극적 대책만 제시하고 있는 상태이다. 대학생은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단계이며, 이 시기에 형성된 자아정체감과 삶의 대처 기술 등이 성인기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자살생각에 대한 대학생들의 대처기술의 향상과 안정된 자아정체감 형성 등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자살예방 정책과 연구가 제시되어야 한다.

국내외 선행연구들은 자살생각의 주요한 심리적 원인으로 우울(Mackenzie, Wiegel, & Mundt, 2011; Jang & Kim, 2005; Sherer, 1985), 무망감(Beck, Brown, Berchick, Stewart, & Steer, 1990; Asarnow, Carson, & Gutgodhrie, 1987), 스트레스(Wilson, Stelzer, Bergman, Kral, Iany, & Elliot, 1995; DeLongis, Folkman, & Lazarus, 1988), 약물남용(Kuo, Gallo, & Eaton, 2004; Kandel, Ravies, & Davies, 1991; Crumley, 1979), 완벽주의(Ha & An, 2008), 개인의 정신병리(Bolton, et al., 2007)와 성격특성(Yeo & Baek, 2010) 등을 들고 있으며,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우울과 스트레스를 보고하고 있다(Choi, Bai, & Chang, 2010; Yeo & Baek, 2010; Sohn, 2007).

우울과 심리적 스트레스 등의 부정적 심리상태는 대학입학 후 당면하게 되는 새로운 학업적 요구와 교수 및 동료들과의 유대감 형성에 따른 관계에 의해 배가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Kim(2010)은 대학생들의 중도이탈과 관련한 연구에서 대학생들의 학문적 통합성과 사회적 통합성이라고 명명하였으며, 전반적인 대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와 적응의 주요 원인으로 들고 있다. 학문적 통합성이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적 관심과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초학습능력, 그리고 적합한 학습 습관이 통합되어 학습 요구에 대해 적절히 기능하는 것을 의미하고, 사회적 통합성이란 개인의 개방성에 기초하여 의사소통과 유대감 등의 사회적 관계형성이 통합되어 적절하게 기능하는 것을 의미한다. Bonner와 Rich(1987)는 상황적인 스트레스와 심리사회적인 취약성이 상호작용하여 자살하려는 의도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Ellis와 Ratlift(1986)는 심리적 취약성 중에서도 특히 비합리적 신념이 자살집단을 판별하는 데 매우 유의한 요인라고 하였다(Yeo & Baek, 2010; Kim, 2008).

비합리적 신념에 대하여 Reich와 Arkin(2006)는 내재 이론(Implicit theory)을 통해 각 개인의 부적응에 대한 심리적 변화를 자기평가(self-evaluation)와 자기회의(self-doubt) 감정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내재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본인의 대처에 대해 자기평가를 내리게 되며, 이러한 자기평가는 개별적으로 자기회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 과정을 일으킨다고 하였다. 즉, 대학 신입생은 변화된 학습 환경과 방법, 사회적 관계와 의사소통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거나 혹은 부적응적인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으며, 각 개인들은 내적으로 그 결과에 대해 스스로 자기평가를 내리고 자기회의의 감정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변화된 학습 환경과 사회적 관계에 부적응을 경험할 경우 부정적인 자기평가가 자기회의 감정을 유발시키게 된다. Carson, Butcher와 Coleman(1988)은 학업적 요구와 사회적 상호작용의 어려움, 그리고 학생 자신의 기본 가치를 재평가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선택의 문제가 자살을 야기한다고 주장하여, 학문적・사회적 통합성과 자기회의 및 자살생각은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고려해 볼 때, 대학 신입생의 상황적 스

트레스 요인인 학문적・사회적 통합성은 심리적 취약성인 자기회의와 함께 자살생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므로 대학 신입생들의 가장 큰 상황적 스트레스 요인인 학문적・사회적 통합성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서 심리사회적 취약성인 자기회의가 매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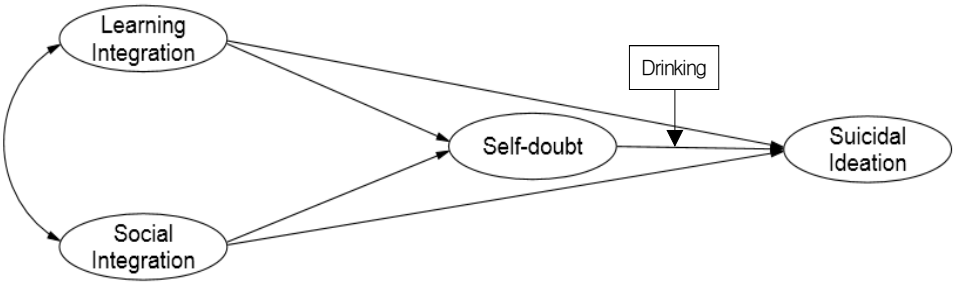
이처럼 자살생각에 미치는 여러 심리적 요인이 있지만, 국외의 선행연구들은 음주를 자살의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보고하고 있으며(Boenisch et al., 2010; Bagge & Sher, 2008), 청소년 자살에 있어서도 역시 주요 요인으로 보고하고 있다(Bossarte & Swahn, 2011; Borges, Benjet, Medina-Mora, Orozco, & Nock, 2008). 알콜 남용이나 알콜 의존으로 치료받은 사람들이 일반 인구에 비해 자살위험이 약 10배 이상 높으며, 술에 취하는 것은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보다 약 90배 정도 자살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를 고려해 볼 때(as cited in Yoon & Cho, 2011; Wilcox, Conner, & Caine, 2004), 대학생이 되면서 합법적으로 허용된 음주의 요인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음주는 대학 신입생의 환영식부터 시작해 입학과 동시에 자주 접하게 되고 강요를 받는 행위이다. Kim과 Park(2004)은 성인의 스트레스 대처방법과 음주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음주가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회피적 대처 및 정서적 대처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으며, 스트레스에 직면한 개인이 효과적인 대처방안이 없을 때 사용하게 되는 일반적인 대처기전이라고 주장하였다. 금기시 되던 음주가 선택의 문제로 변하면서, 대학생들은 음주에 대한 실제적 조절이나 대처에 대한 준비 없이 음주상황에 쉽게 노출되는 경향이 있고, 이는 스트레스 상황이 발생했을 때 회피적, 비관적 대처 혹은 대처할 방법이 없어서 음주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음주는 자살생각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Brent, Perper, & Allman, 1987; Kuo, Gallo, & Eaton, 2004). 음주는 개인의 감정을 고조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회피적 대처로 활용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대학 신입생이 되어 합법적으로 허용된 음주는 심리적 취약성인 자기회의 감정이 회피적, 비관적 대처 방법의 하나인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한 조절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 신입생의 학문적 통합성과 사회적 통합성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자기회의의 매개효과와 음주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문적 통합성과 사회적 통합성, 자기회의와 자살생각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학문적 통합성 및 사회적 통합성과 자살생각 간에 자기회의가 유의한 매개변수가 되는지, 자기회의와 자살생각 간에 음주여부의 유의한 조절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모형

본 연구는 대학 신입생의 학문적 통합성과 사회적 통합성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자기회의의 매개효과와 음주여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며, 이를 도식으로 표현하면 [Figure 1]과 같다.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상황적인 스트레스와 심리사회적인 취약성이 자살하려는 의도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으로 보이며(Bonner & Rich, 1987), 부적응에 대한 자기회의 감정과 음주행위는 자살생각을 조절하는 효과를 가질 것으로 기대되므로(Brent, Perper, & Allman, 1987; Ellis & Ratlift, 1986) 상황적인 스트레스인 학문적·사회적 통합성이 심리사회적 취약성이 자기회의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며, 자기회의와 자살생각에 음주가 조절효과를 나타낸다는 [Figure 1]과 같은 연구모형을 가정하였다.



[Figure 1] Research model

연구모형의 검증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분석하였다. 첫째, 자기회의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자기회의가 학문적·사회적 통합성과 자살생각 사이에서 부분매개를 하는 현재의 연구모형과 학문적 통합성과 사회적 통합성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가 없다고 통제한 완전매개모델을 경쟁모형으로 설정하여 비교 분석하였으며, 두 번째로 음주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음주여부에 다른 다중집단을 구성하여 자기회의와 자살생각 간의 경로계수를 제약한 제약모형을 비제약 모델과 비교함으로써 음주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서울에 소재한 한 대학의 2011년도 1학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1학기를 보낸 후 6월에 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설문지는 연구목적으로만 활용되며 개인의 신상이 노출되지 않을 것이고,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싶지 않으면 언제든지 중간에 포기할 수 있다고 공지하였다. 설문지에 응답한 학생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으며, 응답시간은 대부분 30분 이내에 완료되었다. 설문지는 1,000부를 배포하였으며, 응답을 하지 않거나 불성실한 응답지를 제거하고 총 803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자가 313명(39.0%), 여자는 490명(61.0%)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20.3±12세였다. 연구대상자들의 음주여부를 살펴보면, 현재 음주자는 389명(48.4%), 금주자는 414명(51.6%)이었으며, 출신고교별로는 인문계고 졸업자가 83.7%로 가장 많았고, 전문계 8.5%, 특목고 4.9%, 기타 2.8%였으며,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입학한 경우가 77.1%, 재수생이 19.3%, 2년 이상 재수생이 3.6%이었다. 종교여부를 살펴보면 기독교가 38.8%였으며, 천주교 9.2%, 불교 3.8%, 무교가 48.2%였고, 거주방법으로는 자택 75.2%, 기숙사 20.9%, 기타 3.9%였다.

3. 연구 도구

1) 학문적·사회적 통합성

학문적 통합성과 사회적 통합성은 Kim(2010)이 대학 학교생활 향상질문지를 통해 개발한 대학으로서의 학문적 통합성과 사회적 통합성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학문적 통합성은 학습습관 3문항(‘나는 학교 공부에 집중하기가 어렵다’ 등), 지적 관심 2문항(‘나는 독서를 통해 개인적 만족을 충분히 얻는다’ 등), 기초 학습 능력 3문항(‘나는 이번 학기 수업내용이 전반적으로 어렵게 느껴졌다’ 등)의 3개 하위요인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적 통합성은 개방성 2문항(‘누군가의 의견과 나의 의견이 강하게 부딪칠 때, 나는 그 사람에게 불쾌한 감정이 생기면 가깝게 접촉하는 것을 피하게 된다’ 등)과 의사소통과 유대감 4문항(‘나는 내가 원할 때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 등)의 2개 하위요인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의 측정은 ‘매우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척도로 조사를 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학문적 통합성과 사회적 통합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Kim(2010)의 연구에서 학문적 통합성의 신뢰도(Cronbach’s α)는 0.80, 사회적 통합성은 0.84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학문적 통합성이 0.75, 사회적 통합성은 0.77이었다.

2) 자기회의

자기회의(Self-doubt)척도는 다면적 인성검사-2(MMPI-2)에 포함되어 있는 소척도 중 자기회의척도 4문항을 사용하였다. 다면적 인성검사-2는 1989년 미네소타 주립대학교에서 표준화하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성격검사이며, 한국판은 2005년에 (주)마음사랑에서 표준화하여 보급되고 있다(Kim et al., 2005). 한국판 다면적 인성검사-2의 판권은 (주)마음사랑이 소유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를 위해 다면적 인성검사의 일부 문항 사용료를 지불하고 허가를 받아 사용하였다. 자기회의척도의 측정은 ‘매우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척도로 조사를 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회의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α)는 0.70이었다.

3) 자살생각

자살생각척도(Scale for Suicidal Ideation)는 Lee(2004)가 Beck, Kovacs와 Weissmen(1975)이 임상면접시 사용하는 자살생각척도 문항들을 번안하여 사용하였으며, 문항 중 지필형 검사로 수행하기에 적절한 4문항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자살생각척도의 문항구성을 살펴보면, ‘내가 살아있지 않은 편이 차라리 나을 것이라 생각한다’, ‘자살을 할까 생각해 본 적이 있다’, ‘내 인생은 너무 형편없이 엉망이라서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내가 자살하

면 내게 무관심한 사람들이 후회하게 될 것이라 생각했다'의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우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척도로 조사를 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높은 것이다. Lee(2004)는 그의 연구에서 신뢰도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α)는 0.71이었다.

4.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Ver. 19.0) 프로그램과 AMOS(Ver.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조사도구의 신뢰도는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α)를 산출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값을 제시하였다. 입학 전·후 음주여부의 변화는 McNemar의 검정으로, 연구변수들의 상관관계는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로 분석하였으며, 변인 간의 관계를 구조화한 연구모형에 대한 검정은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추정방법은 개별 변수들의 첨도(-0.79 ~ 1.34)와 왜도(-0.46 ~ 1.34)를 분석한 결과 정상성에 위배되지 않았으므로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을 사용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χ^2값과 TLI, CFI, RMSEA, SRMR 지수들을 고려하였으며, TLI와 CFI는 0.90이상일 때 좋은 적합도로 해석하였고, RMSEA와 SRMR은 0.05이하이면 좋은 적합도로, 0.08 이하이면 연구에서 보통의 적합도로 해석하였다. 매개효과의 검증을 위해 연구모형과 대안모형은 내재된 관계이므로 χ^2값의 차이 검증을 수행하였으며, 매개변수의 경로에 대한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은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조절효과에 대한 검정은 조절변수가 작용하는 경로를 통제한 통제모델을 설정한 후 연구모델과 χ^2값의 차이를 비교하여 검증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연구변수들의 상관관계 분석

학문적 통합성과 사회적 통합성, 자기회의 및 자살생각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Table 1>, 학문적 통합성과 사회적 통합성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r=0.28, p<0.001), 학문적 통합성(r=-0.22, p<0.001)과 사회적 통합성(r=-0.40, p<0.001) 모두 자살생각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자기회의는 학문적 통합성(r=-0.40, p<0.001)과 사회적 통합성(r=-0.45, p<0.001), 자살생각(r=0.50, p<0.001)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Table 1> Correlation matrix and descriptive statistics of measures

(N=803)

	1	1-1	1-2	1-3	2	2-1	2-2	3	4
1. Learning Integration									
1-1. Study Skill	0.76***								
1-2. Intellectual Interest	0.66***	0.22***							
1-3. Learning Ability	0.77***	0.37***	0.33***						
2. Social Integration	0.28***	0.21***	0.13***	0.26***					
2-1. Communication	0.22***	0.17***	0.12**	0.18***	0.67***				
2-2. Fellowship	0.23***	0.17***	0.10***	0.23***	0.90***	0.27***			
3. Self-doubt	-0.40***	-0.38***	-0.14***	-0.33***	-0.45***	-0.26***	-0.43***		
4. Suicidal Ideation	-0.22***	-0.20***	-0.09**	-0.17***	-0.40***	-0.17***	-0.42***	0.50***	
Mean	25.61	9.22	6.91	9.49	22.66	6.83	15.82	10.78	78.41
Standard Deviation	4.09	2.09	1.63	1.84	3.08	1.42	2.37	2.72	2.38

** p<0.01, *** p<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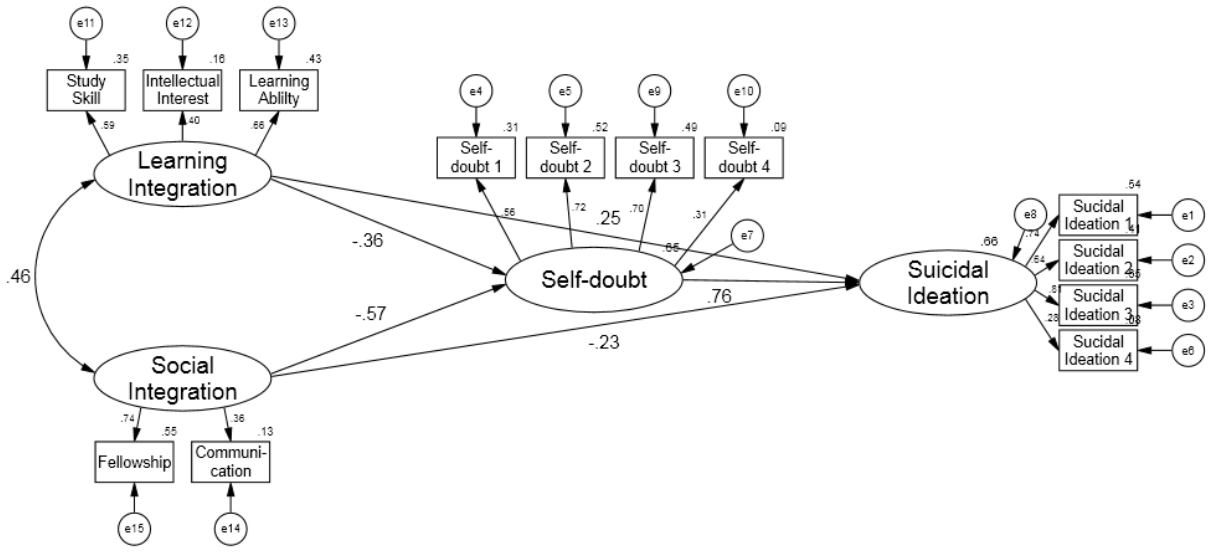
2. 자기회의의 매개효과

자기회의가 학문적 통합성과 사회적 통합성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간에 매개효과를 보이는지 검증하기 위해 자기회의가 부분매개를 하는 연구모형(부분매개모형)과 완전매개를 하는 대안모형(완전매개모형)을 설정하여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각 모형에 대한 적합도 분석결과<Table 2> 부분매개모형의 적합도는 χ^2=225.141, df=59, TLI 0.906, CFI 0.929, RMSEA 0.059, SRMR 0.045로 나타나 부분매개모형은 자료를 잘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대안모형인 완전매개모형의 적합도 역시 χ^2=249.399, df=61, TLI 0.897, CFI 0.920, RMSEA 0.062, SRMR 0.048로 나타나 완전매개 모형도 비교적 적절한 적합도를 나타내었다. 연구모형과 대안모형은 상호 내재(nested)되어 있으므로 χ^2값의 차이 검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두 모형의 χ^2값의 차이는 24.258(Δdf=2)로, 0.05수준에서 유의했으므로 경로의 추가가 유의미하다고 판단하였다. AIC값도 부분매개모형이 더 적게 나타나, 최종적으로 연구모형인 부분매개모형을 보다 더 적합한 모형으로 선택하였다[Figure 2]. 그러므로 신입생들의 학문적 통합성과 사회적 통합성은 자살생각에 대해 직접적인 효과가 있으며, 자기회의를 통한 간접적인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기회의의 부분매개 효과를 확인하였다.

<Table 2> Comparison test of goodness of fit between partial and full mediation model

Model	χ^2	df	TLI	CFI	RMSEA	SRMR	AIC	$\Delta\chi^2$	Δdf
Partial Mediation Model	225.141***	59	0.906	0.929	0.059	0.045	289.14	24.258*	2
Full Mediation Model	249.399***	61	0.897	0.920	0.062	0.048	309.40		

* p<0.05, *** p<0.001



[Figure 2] Standardized path coefficients of research model

연구모형의 경로계수와 직·간접 효과를 분석해보면 <Table 3>, 학문적 통합성의 경우 자기회의에 대해 부적 영향이 있으면서 동시에 자살생각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자기회의가 경쟁적 매개변수로 작용하고 있었다. 학문적 통합성은 자살생각과 약한 부적 상관관계(r=-0.22, p<0.001)가 있었으며, 간접효과와 직접효과의 경쟁적 관계로 인해 낮은 총 효과(β=-0.03)를 보였다. 사회적 통합성은 자살생각에 유의한 부적 직접효과가 있었고(β=-0.23, p<0.05), 자기회의를 통한 간접효과도 유의했다(β=-0.44, p<0.01). 자기회의는 자살생각에 유의한 직접효과가 있었으며(β=0.76, p<0.001), 학문적 통합성과 사회적 통합성, 자기회의는 자살생각을 66.3% 설명하였다.

<Table 3> Path coefficient and direct · indirect effect of research model

(N=803)

Variables			Coefficient		Effect (β)		
Dependent		Independent	b	S.E.	Direct	Indirect	Total
Self-doubt	←	Learning Integration	-0.16	0.03	-0.36***		-0.36
Self-doubt	←	Social Integration	-0.61	0.11	-0.57***		-0.57
Suicidal Ideation	←	Self-doubt	0.94	0.15	0.76***		0.76
Suicidal Ideation	←	Learning Integration	0.14	0.04	0.25***	-0.28*	-0.03
Suicidal Ideation	←	Social Integration	-0.29	0.13	-0.23*	-0.44**	-0.67

* p<0.05, ** p<0.01, *** p<0.001

3. 음주의 조절효과

지난 3개월 간 음주여부를 조사하여 대학 입학에 따른 음주자 비율의 변화를 McNemar의 검정을 통해 분석한 결과<Table 4>, 대학 입학 전 금주자가 입학 후 음주자가 된 경우는 27.1%이나, 입학 전 음주자가 입학 후 금주한 경우는 5.2%로 나타나 대학입학에 따른 음주여부의 변화는 유의하였다(χ^2=75.114, p<0.001). 대학 입학 당시 금주하던 학생들 319명 중 43.8%인 140명이 한 학기 만에 음주를 시작하였다.

<Table 4> Difference of drinking according to college entrance

	Drinking		McNemar		
Subject	Before entrance	After entrance	n	%	χ^2
Group 1	Non-drinking	Non-drinking	179	34.7	75.114***
Group 2	Non-drinking	Drinking	140	27.1	
Group 3	Drinking	Drinking	170	32.9	
Group 4	Drinking	Non-drinking	27	5.2	

*** p<0.001

음주의 조절효과를 검정하기 위해 <Table 4>에서 분류된 금주집단과 음주집단을 이용하여 다중집단모형분석을 하였다. 먼저 금주집단은 대학에 입학 전부터 금주했으며 현재도 금주를 한다고 응답한 집단(Group 1, 179명, 34.7%)로 설정하였고, 음주집단은 세밀한 분석을 위해 고교시절 금주했으나 대학에 들어와서 음주를 시작한 입학 후 음주자 집단(Group 2, 140명, 27.1%)과 고등학교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음주를 하고 있는 음주자 집단(Group 3, 170명, 32.9%)으로 나누어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고등학교에서 음주를 했으나 현재 금주를 하고 있는 학생들(Group 4, 27명, 5.2%)은 매우 낮은 비율과 3개월 금주 경험을 금주자로 분류하는 문제로 인해 분석에서 제외하였고, 두 문항에 모두 다 응답하지 않은 학생들도 제외하였다.

음주여부가 자기회의와 자살생각 간에 나타나는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자기회의와 자살생각 간의 경로계수를 동일하게 제약한 제약 모형 1(Structural Weights Model)과 비제약 모형 1(Unconstrained Model) 간 χ^2값의 차이검정을 수행하였다<Table 5>. 분석결과 비제약 모형과 제약 모형 간에는 유의한 χ^2값의 차이가 있어 음주의 조절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Delta\chi^2$=6.282, p<0.05). 자기회의와 자살생각 간의 경로계수를 분석한 결과 지속적인 금주자(집단 1)의 경우 자기회의와 자살생각 간의 경로계수가 유의하지 않은 반면(b=3.55, n.s.), 입학 후 음주자인 집단 2(b=0.56, p<0.001)와 지속적인 음주자인 집단 3(b=1.59, p<0.01)의 경우에는 자기회의와 자살생각 간의 경로계수가 유의하였다.

추가적으로 음주자 집단을 보다 세분화하여 입학 후 음주를 시작한 집단 2와 입학 전부터 지속적으로 음주를 하고 있는 집단 3을 대상으로 금주자 집단과 다집단 분석을 통해 자기회의와 자살생각 간의 조절효과를 재분석한 결과, 지속적인 금주자(집단 1)와 입학 후 음주자(집단 2)를 대상으로 하는 제약 모형 2는 비제약 모형 2와 유의한 χ^2값의 차이가 있으므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Delta\chi^2$=5.560, p<0.05), 금주자(집단 1)와 지속적인 음주자(집단 3)를 대상으로 한 제약 모형 3의 경우에는 비제약 모형 2와 χ^2값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아($\Delta\chi^2$=0.503, n.s.) 유의한 조절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5> Moderating effect of drinking between self-doubt and suicidal ideation

Model	Moderation					Path coefficient†	
	Multi-group	χ^2	df	$\Delta\chi^2$	Δdf	Subject	b
Unconstrained Model 1		297.436***	174			Group 1	3.55
Structural Weights Model 1	Group 1, 2, 3	303.717***	176	6.282*	2	Group 2	0.56***
						Group 3	1.59**
Unconstrained Model 2		193.566***	118				
Structural Weights Model 2	Group 1, 2	211.116***	119	5.560*	1		
Structural Weights Model 3	Group 1, 3	194.113***	119	0.548	1		

† Path coefficient between Self-doubt and Suicidal Ideation
* p<0.05, ** p<0.01, *** p<0.001

Ⅳ. 논의

본 연구는 급격한 환경의 변화를 경험하는 대학 신입생을 중심으로 학문적 통합성과 사회적 통합성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자기회의의 매개효과와 음주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대학 신입생들이 겪는 급격한 학문적, 사회적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대학 신입생의 올바른 음주 태도 형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에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첫째, 학문적 통합성과 사회적 통합성은 모두 자살생각에 직접효과가 있었으며, 이는 Carson, Butcher와 Coleman (1988)이 대학생의 자살이 학문적 요구와 사회적 상호작용의 어려움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한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학문적・사회적 통합성은 자기회의를 통해 자살생각에 이르는 간접효과도 유의하게 나타나, Lohman과 Javis(2000)가 개인의 스트레스 경험을 정서중심적으로 대처할 때 각종 위험행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전체적으로 학문적・사회적 통합성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자기회의의 매개효과 모형은 Mosciki (1995)가 자살의 원인을 사회적 상황과 개인의 심리적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예측한 모형을 지지하는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학문적 통합성이 높을 경우 자살생각에 정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해 볼 때, 학문적 통합성이 높은 수준의 학생들은 기초학습능력과 학업효능감 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른 만족할만한 학업성취도 등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자살생각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추후 높은 학문적 통합성과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신입생이 겪는 가장 큰 환경의 변화인 학문과 사회적 영역에 있어서 올바른 학습 전략이나 기법, 태도,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능력 등을 향상시키는 예비 신입생 프로그램의 수행은 단기적으로 대학생들의 중도이탈을 방지하며, 장기적으로는 대학생활의 조기 적응을 통한 개인의 성장과 안정된 성인기의 준비를 수행할 수 있게 할 것이다. 학문의 수월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학교나 고등학교 입학 전 예비 신입생들이 사교육이나 학 및 인터넷방송 교육을 통해 선행학습을 수행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대학생활의 시작을 위해서도 사회와 각 대학이 충분한 자원을 투입해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비롯한 선행학습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학생이 되면 고등학교 시절까지 강하게 강요되었던 금주규칙이 자율적 결정에 맡겨지게 되면서, 입학 전 금주자였던 학생들 중 43.8%가 대학 입학 후 한 학기 만에 음주자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대학 입학이 곧 음주의 입문기가 된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자살생각의 예방과 관련된 인지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연구들이 다수 보고되고 있으나(Kim & Son, 2010; Choi, Kim, & Lee, 2005; Ray, Kumaraiah, & Bhide, 2001), 자살생각을 줄이기 위한 신입생의 음주조절 중재전략 관련 연구는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신입생의 금주 및 절주에 대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대학생들의 음주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각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금주 건물 및 금주파티 규칙을 설정하고 있으며, 지역술집들과 신사협정을 체결하고, 음주의 해악을 경고하는 광고물 설치 및 음주관련 교칙 위반시 가족에게 통보하는 규칙 등을 제정하여 수행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대학 자체적으로 음주문제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Choi, 2000). 고등학교에서 강제적으로 준수하던 금주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성인으로서 자발적으로 음주에 대해 인식하고 금주와 절주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대학 입학 전이나 직후에 신입생에 대한 금주 및 절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해야 하겠다.

자기회의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음주의 조절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음주가 자살생각과 관련이 있다는 Perper와 Allman(1987)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자기회의와 자살생각 간에 음주의 조절효과를 입학 전부터 음주한 대학생과 입학 후 음주한 대학생을 구분하여 분석해 봄으로서, 자기회의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음주가 입학 후 음주자에게 더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해 볼 때, 음주와 절주에 대한 준비 없이 갑자기 허용된 음주습관은 스트레스에 대한 비관적이고 회피적인 대처방식의 하나로 활용될 수 있으며, 신입생이 자기회의감을 느낄 경우 적절한 대처방식을 갖추지 못했다면 회피적이며 비관적 대처방식인 자살생각을 더욱 촉발시킬 수 있는 위험한 요인이라는 점을 사회와 대학이 충분히 인식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각 대학은 신입생 환영회 등에서 집단행동을 통해 음주를 강요하거나 음주가 포함된 환영회 행사를 지양하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공표하여야 하겠다.

셋째, 신입생들의 심리적 취약성, 즉 자기회의 감정에 대한 조절능력을 학기 초에 향상시켜 주어야 한다. 대부분의 신입생이 고등학교와는 전혀 다른 환경에 접하게 됨에 따라 새로운 문화 및 생활양식을 정립해야 하고, 자기 자신이 당면한 심리적, 사회적 문제들을 자력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해야만 한다(Yoon, Hwang, Kim, & Jang, 2011). 대학 입학 후 가장 큰 변화의 요인인 학문적 통합성

과 사회적 통합성은 자살생각에 직접효과와 더불어 자기회의를 통한 간접효과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접효과보다 자기회의를 통한 간접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해 볼 때, 대학생들의 내적 자기회의의 조절에 대한 조기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내재 이론에 따르면 자신에 대한 평가 성향이 개인에게 고착되어 있는 사람의 경우 부정적 자기평가에 따른 자기회의 감정이 빈번하게 발생될 수 있으며(Reich & Arkin, 2006), Choi, Bai와 Chang(2010)은 역기능적 신념이 자살생각과 유의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으므로, 학문적, 사회적 영역의 실패를 자신에게 돌리는 내적 평가를 조절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 자기회의 감정이 높아지지 않도록 조절시키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심리적 취약성을 보완하는 프로그램으로 Kim과 Son(2010)은 마음챙김을 활용한 인지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해 대학생들의 우울과 자살생각을 줄이는데 효과적이었음을 증명하였고, Choi, Kim과 Lee(2005)는 인지행동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자살생각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Pan(2007)이 Linehan의 변증법적 행동치료를 통한 청년 자살행동에 대한 위기상담에 관한 연구에서 자살행동에 대한 위기상담을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거나 부적응 행동을 교정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 대 수용의 연속선상에서 자신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고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 정의하면서 제안한 마음모음 기술, 정서조절 기술, 고통감내 기술 및 대인관계 효과 증진 기술 등은 자기회의 조절 훈련의 구체적 방안으로 적용될 수 있겠다. 이러한 인지 및 행동치료 프로그램을 환경적 변화가 많고 심리적으로 취약한 대학 신입생 시기에 조기 수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급격한 상황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음주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의 조절효과와 대학 입학 후 음주를 시작한 신입생들의 위험성을 밝힌 것과, 대학 신입생의 가장 큰 환경 변화 요인인 학문과 사회적 통합성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자기회의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것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대학 신입생들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고 다각적으로 접근해야 하므로 추후 본 연구에서 살펴본 변인들과 더불어 다양한 변인들을 함께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음주의 경우 사회적 압력과 또래 집단에 의한 동조, 개인의 순응 등 여러 사회심리학적인 변인이 작용하여 수행된 행위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며, 또한 연구대상이 기독교 대학이라는 점과 음주자 비율이 높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1개 대학의 신입생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다양한 부류의 대학생들에 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하고 연구결과의 일반화에도 제한이 있다. 또한 학문적 통합성과 자살생각에 있어서 자기회의가 경쟁적 매개변수로 나타난 것을 보완하여 추후 대학에서의 학업과 자살생각 간에 학업성취도 및 기타 주요 변인을 고려한 모형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신입생들의 자살생각과 여러 변인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종단적으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추적하여 분석한다면, 대학 적응 시기별 자살생각의 변화와 대처방안에 대한 양질의 연구가 될 것이다.

Ⅴ. 결론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학문적・사회적 통합성의 직・간접 효과와 자기회의의 매개효과 및 음주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연구한 결과, 학문적 통합성과 사회적 통합성은 자살생각에 유의한 직접효과가 있었으며, 자기회의를 통한 간접효과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여부에 따른 자기회의와 자살생각 간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음주여부는 유의한 조절변인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대학 입학 후 음주를 시작한 신입생들에게 더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통해 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생활 적응에 필요한 학문적, 사회적 영역의 기술향상과 자기회의를 조절할 수 있는 인성교육을 입학 전후에 조기 적용해야 하며, 갑자기 허용된 음주문화의 부작용을 막기 위하여, 신입생을 위한 금주 및 절주 교육을 조기에 수행하여 올바른 음주인식과 조절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 대학은 정책과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수행해야 한다.

참고문헌

Asarnow, J., Carson, G., & Gutgodhrie, D. (1987). Coping strategies, self perceptions, hopelessness, and perceived family environments in depressed and suicidal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ical, 55,* 361-366.

Bagge, C. L., & Sher, K. L. (2008). Adolescent alcohol involvement and suicide attempts: Toward the development of a conceptual framework. *Clinical Psychology Review, 28,* 1283-1296.

Beck, A. T., Brown, G., Berchick, R. K., Stewart, B. L., & Steer, R. A. (1990). Relationship between hopelessness and ultimate suicide: a replication with psychiatric outpatient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7,* 190-195.

Beck, A. T., Kovacs, M., & Weissmen, A. (1975). Hopelessness and suicidal behavior; An overview. *Journal of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34,* 561-571.

Boenisch, S., Bramesfeld, A., Mergl, R, Havers, I., Althaus, D., Lehfeld, H., ... Hegerl, U. (2010). The role of alcohol use disorder and alcohol consumption in suicide attempts: A secondary analysis of 1921 suicide attempts. *European Psychiatry, 25,* 414-420.

Bolton, C., Gooding, P., Kapur, N., Barrowclough, C., & Terrier, N. (2007). Developing psychological perspectives of suicidal behavior and risk in people with a diagnosis of schizophrenia. *Clinical Psychology Review, 27,* 511-536.

Bonner, R. L., & Rich, A. R. (1987). Toward a perspective model of suicidal ideation and behavior.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17,* 50-63.

Borges, G., Benjet, C., Medina-Mora, M., Orozco, R., & Nock, M. (2008). Suicide ideation, plan, and attempt in the Mexican adolescent mental health survey.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47*(1), 41-52.

Bossarte, R. M., & Swahn, M. H. (2011). The associations between early alcohol use and suicide attempts among adolescents with a history of major depression. *Addictive Behaviors, 36,* 532-535.

Brent, D. A., Perper, J. A., & Allman, C. J. (1987). Alcohol, firearms, and suicide among youth.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57,* 3369-3372.

Carson, R. C., Butcher, J. N., & Coleman, J. C. (1988). *Abnormal Psychology and Modern Life(8th ed.).* New York: Harper Collins.

Choi, E. J. (2000). Analysis of drinking problem and preventive measures for university students. *Health, Welfare Policy Forum, 44,* 75-83.

Choi, S. J., Bai, D. S., & Chang, M. S. (2010). Relationships between the parent attachment, dysfunctional beliefs, depression and suicide ideation.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1*(2), 571-582.

Choi, W. Y., Kim, C. K., & Lee, S. Y. (2005). Effectiveness of a cognitive-behavioral group counseling program for college students with depression and suicide thought.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6*(1), 75-91.

Chung, S. (2011). Influence of early onset of drinking and problem drinking on suicide ideation and attempt among koran adolescents: Analysis of 2009 korean youth risk behavior survey. *Journal of Korean Alcohol Science, 12*(1), 15-27.

Crumley, F. E. (1979). Substance abuse and adolescent suicidal behavior.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63,* 3051-3056.

DeLongis, A., Folkman, S., & Lazarus, R. S. (1988). The impact of daily stress on health and mood: Psychological and social resources as mediato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3), 486-495.

Ellis, T. E., & Ratlift, K. G. (1986). Cognitive characteristics of suicidal and non-suicidal psychiatric inpatient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0*(6), 625-634.

Ha, J. H., & An, S. H. (2008). The verification of a structural relationship model of suicidal ideation to stress, coping styles, perfectionism, depression, and impulsivity.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4), 1149-1171.

Jang, M. H., & Kim, Y. H. (2005). The relationship of stress,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in the elderly. *Journal Korean Academic Psychiatry Mental Health Nursing, 14*(1), 33-42.

Kandel, D., Ravies, V., & Davies, M. (1991). Suicidal ideation in Adolescence : Depression, substance abuse and other risk factor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0,* 289-310.

Kim, H, S. (2008).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of stress, hopelessness, and depression to suicidal ideation in the elderly and the adolescents. The Graduate School of Dankook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Kim, J. J. (2009). An analysis of variables related to university student's suicidal ideation. *Mental Health & Social Work, 32,* 413-437.

Kim, J. S., Han, K. H., Lim, J. Y., Lee, J. H., & Min, B. B. (2005). *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2 Manual.* Seoul: Maumsarang Co., Ltd.

Kim, S., & Park, J. A. (2004). Adult styles of coping with stress and drinking problems. *Bulletin of Dongnam Health College, 22*(2), 85-96.

Kim, S. Y. (2010). The report of students retention test in sahmyook university. Unpublished.

Kim, S. H., & Son, C. N. (2010). The effects of K-MBSR-Based cognitive therapy on depression, suicidal ideation, and impulsivity in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9*(189), 1-204.

Kuo, W. H., Gallo, J. J., & Eaton, W. W. (2004). Hopelessness,

depression, substance disorder and suicidality: A 13-year community-based study. *Social Psychiatry Epidemical, 39,* 497-501.

Lee, J. S. (2004). The Influences of melancholia and self-identity of youths on the contemplated suicide of youths. The Graduate school of Myong Ji University. Master Dissertation.

Lim, S. T., Ju, D. B., & Lee, K. J. (2010). The longitudinal changes and interpretation of suicidal ideation, stress, and studying pressure.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29*(1), 23-43.

Mackenzie, S., Wiegel, J., & Mundt, M. (2011). Depression and suicide ideation among students accessing campus health care.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81*(1), 101-107.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8). *A Comprehensive Plan to Prevent the Suicidal Ideation(2009～2013).* Seoul: Author.

Mosciki, E. K. (1995). Epidemiology of suicide. *International Psychogeriatrics, 7,* 137-148.

Pan, S. H. (2007). Suicide in the Korean young adulthood: Special features and dialectical behavioral treatment"s intervention. *University and Christian Mission, 13,* 235-358.

Ray, M. A., Kumaraiah, V., & Bhide, A. V. (2001). Cognitive-behavioral intervention in deliberate self-harm.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104,* 340-345.

Reich, D. A., & Arkin, R. M. (2006). Self-doubt, attributions, and the perceived implicit theories of others. *Self and Identity, 5,* 89-109.

Sherer, M. (1985).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in college students. *Psychological Report, 57,* 1061-1062.

Sohn, J. N. (2007). Discriminating power of suicidal ideation by life stress, coping strategy, and depression in college students. *Journal Korean Academic Psychiatry Mental Health Nursing, 16*(3), 267-275.

Wilson, K. G., Stelzer, J., Bergman, J. N., Kral, M. J., Iany, A. M., & Elliot, C. A. (1995). Problem solving, stress, and coping in adolescent suicide attempts. *Suicide and Life-Treating Behavior, 25,* 241-252.

Yeo, H. H., & Baek, Y. M. (2010). The effect of borderline personality traits, maladaptive perfectionism, and depression on suicide-related behaviors.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9*(4), 1047-1066.

Yoon, H. S., Hwang, Y. M., Kim, D. B., & Jang, S. H. (2011). The effects self-differentiation stress coping methods and mental health on life adjustment in university.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al Forum, 10*(2), 1-25.

Yoon, M. S., & Cho, H. C. (2011). A longitudinal effects analysis of adolescent drinking on the suicidal ideation.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3*(3), 43-66.